

G-17 : 고사지내는 방법

1. 고사의 의미

고사는 우리 동양의 전통의식중의 하나로서 화를 면하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행하여지는 신과 인간의 합일을 이루는 기원제의 일종으로 행사준비자는 물론 전임직원은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행사에 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사상은 회사의 주요한 자리를 정해놓고 의식을 치르게 된다. 아울러 고사가 마친후 전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고사음식을 나눔으로써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진설상에는 각 회사의 전통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회사의 특성을 살려 진설하는 것이 좋으며, 대개가 제례의식에 준해 치워지며 진설상 또한 홍동백서, 좌포우혜등의 격식을 갖추어 진설한다.

2. 고사를 올리는 자세

고사를 올린다는 것은 공통된 어떤 학설이 있어서 공통된 절차와 규칙에 의해 올리는 것은 아니다. 단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습속에 따라 변형되어지면서 각기 다양한 형식의 고사를 지내고는 한다. 그러나, 고사의 근본적인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 하겠다.

첫째는, 고사전 몸,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좌하여 고사에 대한 명상, 즉 재계를 한다.

둘째는 형식에 치우친 고사 예식이 아닌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올린다.

셋째는, 즉흥적이 아닌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예법에 맞도록 지내야 한다.

넷째는 선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회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해야 한다.

☞. 고사를 주관하는 당사자가 당황하고 불안해한다면 그 고사가 무슨 영향을 볼 수 있겠는가? 진행절차와 준수사항을 수시 체크,예법의 근본정신과 기초적인 절차에 대하여 깊이 이해 할 필요가 있다.

3. 고사 택일

고사 택일에는 기제사 등처럼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어떤 회사에서는 연말 연시에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한해의 화를 면하게 해준 데 대한 감사와 새해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10월 중 즉 추수절 대보름달이 뜨는 월에 행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므로, 적당한 날을 잡는다는 것에는 정석은 없는 것이며 철학가나 점술가에 의뢰하여 회사별로 좋은 날을 택하곤 한다.

4. 고사 식전 준비

- ①재계 ②제구와 제기의 설비 ③고사장 주변정리 ④제수(고사음식)의 준비
⑤진설상 (진설은 소반에 정성스레 담아 옮긴다.)

- 떡시루 : 백설기 또는 시루떡을 둥근 떡시루 혹은 사각제기 위에 올려놓는다.
- 돼지머리 : 돼지머리는 앞쪽을 향해 세워 놓는다.
- 과일류 : 과일류는 음수로 놓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홀수로 놓는다.
- 병풍 : 병풍은 남향일 경우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가옥 또는 회사건축구조물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그에 맞도록 설치한다.

【주】 1) 상기 진설도는 각 회사의 습성에 따라 변용할 수 있다.

2) 허식적인 음식물을 차리지 않도록 한다.

3) 초에 불을 켜고 제수를 놓는다.

4) 자 리 : 고사 지내기 위한 고사상 앞 바닥 향안 밑까지 깔도록 한다.

5. 고사 (식) 진행

(1) 강신 (신내리기)

- ① 고사 제주(대표자 등)는 고사상 앞에 무릎꿇고 촛대에서 불을 붙여 향안위에 있는 향로(또는 향합)에 분향한다.
- ② 집사(고사를 이끄는 사람)는 술병을 열어 주전자에 따르고 나서 잔반을 가지고 1명은 제주의 왼편에, 1명은 주가에서 주전자를 가지고 오른편에 선다.
- ③ 제주는 무릎을 꿇고 앉으면 잔반을 든 집사도 무릎을 꿇어 그것을 제주에게 올리고, 주전자를 가진 집사도 무릎을 꿇고 잔에 술을 따른다.
- ④ 제주는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술을 세번 나누어 모사 위에 씻어 내린후 잔과 잔대를 집사에게 준다. 이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정해진 자리로 돌아간다.  미리 대문 개폐 확인

(2) 참신(합동 참배)

- ① 고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합동으로 신에게 참배하는 절차이다.

(3) 초헌(첫잔 드리기)

- ① 고사 대표자는 고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집사 한명이 주전자를 가지고 오른편에 서서 잔에 세번에 걸쳐 술을 따른다.
- ② 대표자는 잔반을 고사상 우측에 올려놓고 일어나 두번 절하고 서 있다.
그때 집사는 첫잔을 가지고 동서남북 네 모서리(구석)에 4번에 걸쳐 첫잔의 술을 고수레하고 따른다.

(사방의 재앙을 면하는 동시에 사방에서 복을 부르고자 하는 의미.)

- ③ 집사가 사방에 뿌리고 나서 잔을 올려 놓으면 대표자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4) 아헌(버금잔 드리기) - 잔을 올리는 의식은 초헌 때와 같다.

(5) 중헌(본잔 드리기) - 마지막으로 올리는 잔이다.

- ①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잔을 올린다.
- ② 중헌 후에는 술을 퇴주 그릇에 붓지 말고 그대로 둔다.

(6) 수조와 음복(복받기)

- ① 고사를 지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반대로 내려 받는 의식으로, 집사는 마지

막잔을 대표자에게 주면서 “복 받으십시오” 라고 축복한다. 대표자는 잔반을 받아 술을 조금 고수레하고 맛을 본 뒤 음식도 조금 맛보는 것으로 의식을 마친다.

6. 고사 장소 및 음식 나누기

회사에서는 주로 대표이사(혹은 owner)의 사무실에서 먼저 하고, 자금, 전산, 수주 관련부서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별 지점 및 공장이 개설되어 있다면 지점별로 순회하면서 고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고사음식은 제사상을 정리하여 고사장 및 기타 다른 장소에 고사음식을 여러 직원들에 나누어 주는 절차로, 일종의 잔치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나누어 줌으로써 신의 은택을 함께 하도록 한다는 뜻이며, 회사에서는 여러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사음식은 그날 중으로 모두 소비해야 한다. 이는 신의 은택을 묵혀서는 안된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지만, 또한 음식이 상하기 전에 처분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고 하겠다.

7. 용어의 해설

<제 구>

- ① 병 풍 : 고사 지낼 장소의 뒤와 옆 등을 둘러친다. 현란한 그림이 그려진 것은 피한다.
- ② 고사장 : 고사 음식을 차리는 상이다.
- ③ 향 안 : 향상(香床)이라고 한다. 향로와 향합, 모사 그릇을 올려 놓는 작은 상이다.
- ④ 주 가 : 주전자, 현주병, 퇴주기 등을 올려놓은 작은 상이다.
- ⑤ 소 반 : 고사 음식을 진설하기 위해 옮길 때 쓴다.
- ⑥ 촛 대 : 고사상에 촛불을 밝히기 위한 도구 좌우 한쌍
- ⑦ 향 로 : 향을 피우는 기구. 향을 피우는 것은 강신때 양지(하늘)에 있는 신을 부르기 위한 의식
- ⑧ 향 합 : 향을 담아 놓는 그릇
- ⑨ 모사기 : 강신때 소주를 여기에 붓는다. 이는 음지(땅)에 있는 신을 부르는 의식, 보통 굽이 있는 수반과 유사한 그릇을 모래와 떠 한푼을 한뼘 정도로 잘라 가운데로 붉은실로 묶어서 모래에 꽂는다. 이것은 땅바닥을 상징하는 것이다.
- ⑩ 자 리 : 고사 지내기 위한 고사상 앞 바닥에 깎는다. 이때 향안 밑까지 깔도록 한다.

<제 기>

나무로 만든 목기나 놋쇠로 만든 유기를 함께 사용하며 요즘에는 녹이 잘 나는 유기보다는 스테인레스 스틸 그릇이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편리하다.

- ① 잔 반 : 잔은 술잔이고 반은 받침대이다. 고사에서는 하나의 잔반을 가지고 사

용하여도 무방하다.

- ② 주전자 : 깨끗이 씻어서 놓는다.
- ③ 퇴주기 : 빈 대접 하나를 준비한다.(향안 옆에 놓는다)
- ④ 사각 접시 : 사각형의 판 밑에 굽(다리)이 달린 그릇, 과일류를 올려놓는다.
- ⑤ 술 병 : 목이 긴 자기로 된 병을 쓸 수 있으나, 요즘에는 호리병 및 플라스틱 병도 있다.

■ 준비물품

연 번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1	돼지 머리	두 근	1	
2	보쌈 고기	접 시	50	
3	보쌈 김치	포 기	40	
4	시 루 떡	시 루	3	
5	빈 대 떡	장	150	
6	두 부	모	60	
7	사 과	개	20	
8	배	개	20	
9	굴	box	1	
10	밤(생울)	되	1	
11	대 추	되	2	
12	감	개	20	
13	야 채			
14	음 료 수	1.5l	40	
15	소 주	▼2홉	45	
16	순 대			
17	새 우 젓	kg	5	
18	고추장,된장			
19	종 이 컵	개	200	
20	배추 김치	포 기	20	
21	소 독 저	조	450	
22	은박 접시	개	대70, 소100	
23	북 어	마 리	7	
24	향	갑	3	
25	편 육	접 시	50	
26	양 초	통	1	
27	실	타 래	6	
28	제 기	개	15▼	
29	간 장	병		